

IMF 좌절감 치유

마음의 습어로 오세요

우리는선우 '화엄동산'



◆남자실 이사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부처님의 미소를 생각합니다. 온화한 미소속에 번지는 지혜와 자비의 힘.

그 지혜와 자비의 실천을 통해 불교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는선우 이사장 남지심씨가 스산하고 허한 마음을 달래줄 마음의 습어 '화엄동산'을 활짝 열었다. 모임의 주제는 '좌절을 승화할 수 있는 힘...서원(誓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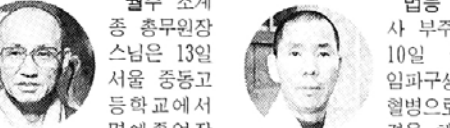
갑작스런 IMF 한파로 겪는 좌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 파산의 공포 등 정신적 고통을 함께 모여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다.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가슴을 옥죄지만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존귀한 것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실 수 있는 힘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4시 자리를 마련, 경건공부와 월 1회 철야기도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회비 2만원. (02)607-2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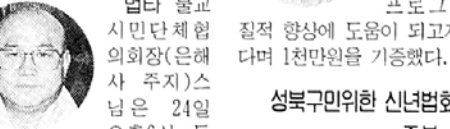
교차로

중등교 명예졸업장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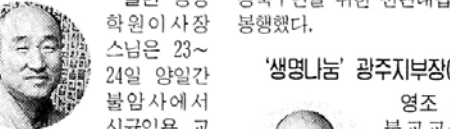
원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은 13일 서울 중등고등학교에서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스님은 중등고 47기생으로 입학했으나 3학년 4학기 중 6·25전쟁으로 휴학을 하지 못했다. 이후 스님은 금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번 명예졸업장은 중등고 47회 동기생들의 추천으로 받게 됐다.

불교시민단체형 신년하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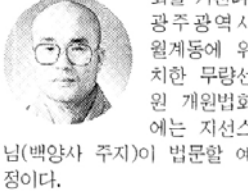


법타 불교시민단체형의 회장(은혜사 주지)스님은 24일 오후 6시 동보성에서 신년하례식을 갖는다. 이번 하례식에는 경련, 보리방송모니터 등 11개 불교단체가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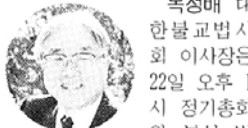
신규임용 교사 연수회



일련 광동학원이 이사장 스님은 23~24일 양일간 불암사에서 신규임용교수 연수회를 개최한다. 광동학원의 설립 이념인 불교 정신의 올바른 이해와 종교학교 근무교수로서 갖춰야 할 불교 소양을 익히기 위해 마련한 이번 연수회는 교사론, 불교개론, 불교문화의 이해, 불교의 교육관, 참선강의 및 실수 등을 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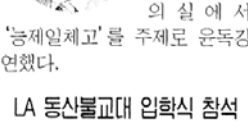
송재건 회장 경실련에 건물 무료임대



송재건 중앙신도회장(중앙산업 대표)이 자신의 소유건물을 경실련에 무료임대기로 했다. 송회장은 경실련이 IMF한파로 월 5백만원의 임대료와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김동훈씨(경련 운영위원장, 중앙신도회 기획실장)의 보고와 무료임대 건의를 받고 최근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경실련은 중구 정동빌딩 5층(1백50평)에 21일 입주 예정이며,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일체를 내지 않아도 된다.

'1700여 회원 결속 강화'

천리안 불교동호회장 심준업씨



"지역과 소모임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일 선거에서 천리안불교동호회 제6대회장으로 선출된 심준업(29·쌍용자동차 MPV연구팀 연구원)씨는 서울 부산에 이어 2개 지역모임과 봉사·미발 등 다양한 소모임을 활성화하여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천리안 불교동호회는 불자들의 통신모임입니다. 그런만큼 편하게 들어와서 스스로 느끼도록 하는데 치중하겠습니다.

심씨는 회원들이 자신의 사찰과 불교관을 갖고 있는 만큼 따스함과 정으로 뭉쳐진 동호회의 칼라를 살리고 1천7백여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결속되도록 하겠다는 것. 이전까지의 운영자들이 길을 닦은 제1기에 해당한다면 자신은 변화기를 맞고있는 제2기에 해당한다는 심씨는 6명의 운영자로 공동운영체제를 구축하여 불교동호회라는 특성을 살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의 심화 ▲불교사상 및 예법의 일상생활화 ▲경전이해 및 탐구 활성화 ▲대화방을 통한 부처님 말씀 전파 ▲봉사활동 적극전개 ▲부운영자의 책임담당제 정착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천리안불교동호회는 주1회 지역모임, 2달에 1회씩 전국모임, 하계수련회, 보은회의 복지시설 방문등의 정기행사를 갖고 있다.

김원우 기자

"한국불상 자비한 모습에 반해"

국립전주박물관 연수 日 하마오카씨

"한국 사찰과 불상에서 느껴지는 자비로움에 꼭 빠져버렸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 교환연구원으로 27일까지 47일간의 한국연수생활을 하고 있는 하마오카 노부야씨(42). 지난 11년부터 시작된 국립전주박물관과 일본 중부 이시가와현(石川縣) 현립박물관의 연구원 교환계회으로 오게됐다. 한국불교를 최대한 느껴보려는 듯 운주사 금산사 내소사 익산 미륵사지

등 고찰을 부지런히 찾아다녔다. "한국말이 서툴러 그저 바라보기만 했지만 고찰 특유의 분위기에서 한국불교의 매력을 충분히 느꼈다"는 하마오카씨는 "일본의 불상들이 대체로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 위압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한국불상의 지극한 두 눈은 부처님의 자비를 그대로 담고 있는 듯 감동스러웠다"고 소감을 토로했다. 27일 귀국하는 하마오카

김정은 기자



씨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한국불교와 한국사에 대해 공부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불교에 매료됐습니다. 다시 한국에 와서 좀더 연구하고 한국불교를 일본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청년회 활동 활기 불어넣을터"

대불청 부산지구 김수현회장

"늘 시작하는 마음으로 불교청년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산지구의 활동 기반이 좋은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제22대회장으로 추대된 김수현(49·수원해선대포)회장이 부드러운 미소 속에 강한 뜻을 담아 밝히는 소감이다. 이견국 직전회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보궐선거에 의해 회장직을 인수받아

서인지 前 회장단들이 해오던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중에는 만해불교대학 활성화, 부산교계 내에서의 위상 강화, 청년회 조직 활성화 등의 계획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 부산불교신도회 이사로도 활동해온 김회장은 그간의 교계 활동을 토대로 신행단체나 사찰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보다 폭넓은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역대회장중 최초의 여성

부산=천미희 기자



인 김회장은 "침체된 청년회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작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원입니다. 여러 회원님들과 뜻을 모아 청년회 활동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청아한 목탁소리와 함께 도량계가 겨울새벽 도상에 올려 퍼진다. 서울중계동 마들프라자 7층에 위치한 무진법장사. 상가의 한층을 임대해 불법을 전파하는 전형적인 도심포교당이다. 주지 법장스님은 7년전 전법의 뜻을 펼치면서부터 매일 아침마다 도량식을 거르지 않고 있다. 물론 처음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새벽장을 깨운다는 항의가 있었지만 스님의 설명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나의 마음을 맑히고 이웃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에서 시작했습니다. 도량식은 도량을 청정하게 한다는 의미의 우리나라 불교에만 이어져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통의식입니다." 도량청정무하에 삼보천통강까지 아귀지송묘진인 원사자비발가호-도량이 청정해 티끌 하나 없으니 삼보와 천품은 이 땅에 나투소서. 이제 묘한 진언을 외우니 원컨대 자비가호를 내리소서. 어느덧 추위는 달아나고 가슴 한켠에서 훈훈한 기운이 꿈틀거린다.

글=정성운·사진=고영배 기자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장준분 50,000원 △김정복 30,000원 △양순희 30,000원  
 △17명 △한 주 한끼 916,000원 △탑 한공기 58,100원  
 △나진 선봉시 북녘 어린이 결연 △광야교회 413,750원  
 △관해사 산해원 불교학생 연합회 200,000원 부산부부선재회 30,000원 한국 대학생 불교 연합회 부산지구 1,058,160원  
 △이혜영 1,000,000원 △박명기 100,000 △무주상 1,000,000  
 (2월11일 현재 총 915,203,592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1998년 범음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1969년에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영산재 보존회로 지정되어 불교 교역자의 의견의 전문성과 정통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모집내용** (1) 1학년 상주권공 신입생 00명 (교수 : 조인각 스님)  
 (2) 2학년 각매 편입생 00명 (교수 : 한동희 스님)  
 (3) 3학년 영산 편입생 00명 (교수 : 박송암 큰스님)  
 (4) 연구과(안차비) 신입생 00명 (교수 : 박송암 큰스님)  
 ※ 이론 특별강의 (교수 : 심만춘 스님)

**2.응시자격** 승려, 교역자,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3.전형방법** 서류전형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이력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명서 1부 (4) 증명사진 3매

**4.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8년 2월 5일 ~ 3월 2일까지

**5.원서교부 및 접수처** 범음대학 교무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02)392-3007, 3008

**6.합격자 발표** 1998년 3월 4일 발표 - 개별 통지

**7.특** 전 졸업생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 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준회원 및 전수생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범음대학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전화 : 392-3007,3008 FAX : 393-9450

나는 지금 어느 헛됨속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하는 수행은 과연 올바른 길일까.

**종생과 세계의 참모습을 밝히는**

**능엄경 대강좌**

유마선원장 이 제열 법사가 강의합니다.

● 일시 98년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11시  
 ● 장소 유마선원 법당  
 ● 문의 (0344)967-9122

※ 3호선 확장전철역 학자 덕양구 청 입구